



시카고 서울대학교 동창회 소식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Chicago

전체 동문들의 성심으로 조국과 동포 사회의 미래의人材를 키우는 동창회



하계 야유회 (7월 7일) 에 참석한 동문들



춘계 골프 (5월 26일), 비가 와도 골프! (9월 1일 가을 골프회)



© 김호범, Woodstock, WI 장재철님 농장의 고추



회장 : 박연희 | 매달 첫 목요일 오전 9시
Elly's Pan Cake House | 372 E. Golf Rd., Arlington hts., IL 60005 | (847)364-4400

2차 이사회 10월 20일 6PM 우래옥 | 연말총회 및 송년회 11월 25일(일) 5:30PM Drury Lane

회장인사 꿈나무 향아리를 열며



존경 하는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 동문 선후배님,
그간 가내 두루 편안하시지요? 지난 여름은 참으로 무렵고 고약하였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氣運이 돕니다. 달력의 남은 장을 넘겨 보면, "금년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혼자말이 절로 나옵니다.

어제는 라디오를 틀어 우연히 간 곳이 유행가가 흐르는 미국 방송국이었었는데, 한국말 노래가, 그것도 귀에 익은 노래가 나왔습니다. 요즘 답답한 日常을 훌훌 일탈하는 듯한 달리는 말춤과 노래로써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Psy 박재상의 "江南Style"이었습니다. 시카고 산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 영어방송에서 들은 한국 노래였습니다. 그 전 주에는 자동차 유행유 바꾸러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본 TV화면에는, 군대를 두 번 갔다 와서 오투기처럼 찢었다는 突風の 사나이, Psy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독특한 말춤을, 아침 "NBC Today" 진행자들을, 한 10분 가르친 듯 합니다. 아침 방송에서 10여분을 할애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Psy가 그 중간에, 영어로 말하다 말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더군요. 이는 굉장한 media event입니다. 지난 8월 London Olympic에서, 우리는, 도마(跳馬, Vaulting)의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를 비롯한 한국 젊은이들의 躍動하는 氣象을 보았고, 日本과의 축구 시합은 많은 사람들의 心琴을 울렸습니다. 이러한 大韓의 젊은이들의 세계무대에서의 성공은, 박 세리의 US Open Golf의 승리로 부터 시작하여, 김 연아가 동계 올림픽에서 펼쳤던 매혹적인 figure skating으로 이어졌습니다. 각종 다른 분야에서도 젊은이들이 크나큰 기쁨과 환호와 감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映畵들은 어떻습니까? 최근 유서 깊은 Venice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Pieta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Netflix와 Hulu를 통하여 한국 영화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 곳에는 美國 영화가 아닌, 외국 영화의 절반 이상이 韓國 영화들입니다. 또 Apple과의 訟事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SAMSUNG의 Galaxy와, HYUNDAI 자동차의 질주 또한 지구촌에 흐르는 韓流입니다. 이 도도한 韓流 [soft power] 흐름을 뒷 받치고 있는 힘은, 創意적이고 뜻있는 꿈을 키워온 우리들의 教育 [hard ware] 임은 우리가 모두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 우리 시카고 동창회는, 각 분야에서 開拓者의 삶을 사는 500명의 동문들로 구성된 한 가족입니다. 창설 후 지난 30년 간, 동창회는 90여명으로 구성된 理事會가 그 牽引車였습니다. 매년 \$200씩 내는 理事會費와 선후배님들이 기울이신 헌신적인 봉사가 동창회의 뜻있는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어언, 그 창립 회원들이 90세에서 70세가 되셨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동문들의 성심을 모아 동포사회 발전과 한국문화를 선양하는 동문들을 활동을 지원하며 동창회 장학금을 매년 5-10명의 뛰어난 학생들을 선정하여, 연말 총회에서 수여해 왔습니다. 금년도 장학생 지원서를 받고 있는데, 그 장학금 財源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구좌에는 있는 약 9만불의 資產은 거의가 株式에 투자된 터라, 요즘같은 불황시장에서는 그 利子 소득만으로 장학금을 충당하기에 어렵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그간 180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미국의 뛰어난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母校와 "하늘(sky) 대학"등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기여하거나, 미국내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재직중입니다. 또한 앞으로 한인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棟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던 자부심과 고마움을 전해옵니다. 그래서, 이 獎學사업의 뜻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 500명의 동창 가족들의 정성으로써 祖國과 동포사회의 미래의 꿈을 키우는 인재들을 위하여 "꿈나무 향아리"를 채우고자, 우리 전체 동문들이 적극 참여를 앙망합니다. 이 "꿈나무 향아리"는, 옛날 우리 고향에서 가을이면 명년 봄에 뿌릴 씨종자들을 담아 보존하던 그 향아리입니다.

선후배 여러분, 이 향아리는, 모든 동창들께서 연회비 \$30을 보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바쁜 일들로 많은 동문들께서 동창회 행사에 참석하실 기회가 없으셨던 줄 압니다. 이 同窓會費는, 동창회 제반 사업 추진의 財源이 되며 꿈나무를 키우는 種子 돈이 될 것 입니다. 조상들이 베푼 恩德을 돌아 보는 中秋佳節 인 秋夕을 맞아, 자랑스런 국립 서울대학교의 獎學生이던 우리 동문 선후배님 가정에 두루 多福하시옵기를 感祝드립니다. [Raising children, it takes a village!]

2012년 9월 29일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 회장 김영호 드림

역대회장

초대 1982 이기억(문)	16대 1997 소진문(치)
2대 1983 김현규(의)	17대 1998 박창만(공)
3대 1984 문병훈(사)	18대 1999 구경희(의)
4대 1985 설상수(문)	19대 2000 김정주(문)
5대 1986 강수상(의)	20대 2001 조대현(공)
6대 1987 이용락(공)	21대 2002 한재은(의)
7대 1988 김봉현(법)	22대 2003 장기남(문)
8대 1989 최일주(공)	23대 2004 전현일(농)
9대 1990 배영섭(의)	24대 2005 강영국(수)
10대 1991 서승환(치)	25대 2006 박연희(간)
11대 1992 송순영(문)	26대 2007 이승자(사)
12대 1993 송재현(의)	27대 2008 정호(공)
13대 1994 강화영(문)	28대 2009 노영일(의)
14대 1995 박영규(농)	29대 2010 김영우(문)
15대 1996 이한식(사)	30대 2011 김사직(상)

2012년도 임원진

- ◎ 회장 김영호(의)
- ◎ 수석부회장 한의일(공)
- ◎ 부회장 김호범(상), 김용주(공)
- ◎ 총무 변용국(미)
- ◎ 재무 이동균(공)
- ◎ 기획 김동희(공)
- ◎ 문화 김연화(음)
- ◎ 장학기금 장윤일(공)
- ◎ Web Master 김호범(상)
- ◎ Membership 정승규(공), 김윤하(공)
- ◎ 사진 임현재(의)
- ◎ 소식지 편집 홍혜례(사)
- ◎ Golden Club 노재욱(의)
- ◎ 감사 강영국(수), 박숙(의)
- ◎ 고문 강수상(의), 이용락(공), 송순영(문), 이승자(사), 정호(공), 노영일(의), 이영우(문), 김사직(상), 박영규(농), 구경희(의), 장기남(문)

동창회 상임 위원회

장학생 선정 위원회(위원임기 2년)

신임 (2012-13): 이소정, 장기남, 김윤하, 정승규, 최길용
유임 (2011-12): 이운모, 이승자, 김정주, 박창만, 구경희
당연직(2012,위원장):김영호

장학 기금 관리 위원회(위원임기 3년)

신임 (2012-14): 구행서, 한상호, 임근식
유임: 장윤일 (2011-13: 위원장), 김병운(2010-12)
당연직(2012):김영호,이동균

재미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평의원(위원임기 2년)

신임 (2012-13): 김사직, 노영일, 박영규
유임 (2011-12): 이영우 왕진한 전현일 박연희
당연직 평의원(2012): 김영호 한의일

2014년 동창회 회장 후보 인선 위원회

이사 3명: 이광선, 임이섭, 임현재
당연직 위원장, 김사직 (30대 회장)
전화장 3명 : 이영우, 노영일, 이승자

시카고동창회 2012년 돌아보며

금년 시카고 동창회는 지난 7월에 다친 폭염과 비바람 속에서도 미시간호를 순항하여 이제 제2차 이사회와 연말 총회를 끝으로 항해를 마치고 겨울을 나면서 내년 동창선 32호선 출항을 준비하게 된다. 금년에도 4명의 동문들께서 별세 하였고, 아유회에서 몇분의 새 동창들을 맞이 하였다.

금년에는 연초 계획하였던 행사 일정중 몇가지 행사의 변경이 있었다. 그간 맥도날드가 지원하던 College Fair는 지원자의 결정에 따라 우리 동창회가 더 이상 주관하지 않게 되었다. 10월 6일로 계획하던 동문가족 전체가 참석하는 사과따기 날은 날씨에 따른 과수원의 흉작으로 취소되어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다.

동창회의 기간사업인 장학생 선발은 10월 5일 장학생 심사위원회가 지원자중 7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동창회의 균형 재정의 유지를 돕고자 94명의 동문들이 동창회비를 내시고, 69명의 이사들께서 이사회비를 내셨다.



동창선 31호 임진 黑龍호 항해 일지

다 [마지막 동창회 주소록을 발간한 2007년도에는 124명의 동문들이 동창회비를 냈고, 82명의 이사들께서 이사회비를 내셨다]. 창립 동문들이 연로해 가고, 은퇴, 이주하는 실정을 감안할때 전체 동창들께서 연회비 \$30씩을 보내 주시면 동창회 장학금 재원 마련이 쉬워질 것이고, 이는 우리 동문들의 전체의 성심으로 배출하는 장학 사업으로 더욱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 31대 회장단은 금년에도 동문 주소와 e-mail을 모두 수합하여 신속 정확한 연락망을 확충하여 동문 경조사와 동창회 행사를 손쉽게 알릴 수 있는 새 주소록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 동문 여러분 변경된 주소와 e-mail 주소를 뒷면 양식에 따라 꼭 보내주시십시오 (캠핑이라고 지칭하는 동문님들 인터넷하면 젊어지고 재미있습니다. 배우기 쉽습니다. 그러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을 내다 보는 눈을 열게 됩니다).

연말 총회(11월 25일)는, 2012년 인선위원회(위원장 김사직, 위원:이광선,임아섭,임현재,이영우,노영일,이승자)가 2014년 회장 선출자 후보를 선정하여 2차 이사회(10월 22일)에 보고하면, 2013년 동창회 수석 부회장겸 2014년 동창회장 선출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2년 시카고 동창회 총회 개최 공고

2012년 시카고 동창회 동창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동문들께서는 가족 동반하여 총회 후 있을 즐거운 送舊迎新的 시간을 동문선후배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12년 11월 25일(일)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 장소: Drury Lane(100 Drury Lane, Oakbrook Terrace, IL)
- 총회의제: 2014년 회장 선출자 후보 인준, 2013년 회장단선출, 장학금 수여, 회무보고 및 심의
- 송년회 (회비 1인당 \$85.00)-여흥시간에는 유명한 골프강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2012년 10월 20일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회장 김영호,
수석 부회장 한의일

춘계·추계 골프대회

<춘계 골프 대회>

5월 26일 29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봄 골프 대회를 Willow Crest Golf Club에서 개최하였다. 행사후 만찬이 Korea Garden 에서 있었다. 이날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남자부: Gross 신태수, Net 한재은, Closest 신태수, Longest 최대환
여자부: Gross 김승수, Net 박숙, Closest Mrs.문병훈, Longest Mrs.박영규
이동균, 문병훈, 이시영, 박용균, 최의필 동문이 특별 상품을 받았다.

<추계 골프 대회>

우중인데도 32명의 동문이 등록하여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정신에 따라 점심과 저녁을 함께 하며 선후배가 진한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비움이 모자라 "처음처럼" 소주는 새로운 동창회 사진사께서 취입력으로 쏘셨다

문리대 동창회 소식 人生은 90 더하기

문리대 동창회 (회장 최희수, 67입)의 연례 "출석 부르는 날"이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 30분 세노야 식당(8750 W. Golf, Niles, IL 60714)에서 있었다. 예년과 달리 결석자가 많았는데, 아마도 같은 날 있던 동창회 관련 두 행사(봄 골프대회와 음악회)의 영향인 듯 하였다.

문리대는 관악산 교정이 열릴 때 박물관으로 갔지만, 시카고 동창회는 광활한 미시간 호변에서, 봄이면 노란 개나리가 피고 낙산의 맑은 물에 씻긴 세모래가 흐르던 大學川과, 가을이면 마로니에의 낙엽을 밟던 東崇洞 교정을 기억하는 만년 청년들의 모임이다. 참석자는 이기억 (물리 41, 시카고 총동창회 초대회장), 신석균 (물리 54), 최길용 (수학 57), 최희수 (전기 67)와 김정수(외교 69) 동문과 University of Chicago에 재학중인 관악산 90년 세대 권윤경 (인문대 서양사), 김기호 (사회대 인류학) 동문들이었다. 참석자는 소수였지만 현재 관악 교정의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를 망라하는 大(?) 동창회의 뜻있는 모임이었다. 권윤경 동문은 6월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학위 논문: Ending Slavery, Narrating Emancipation: Revolutionary Legacies in the French Antislavery Debate and "Silencing the Haitian Revolution", 1814-1848), 김기호 동문은 사회인류학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 자료 수집자 1년간 중국으로 현지 연구를 다음주 떠난다고 하였다.

이 모임에 따뜻한 훈기가 들었던 것은 이기억 선배님이 금년에 90세가 되시고 연전에 사모님께서 별세하셨지만, 참으로 정정한 모습으로 두 효녀 따님 가족과 함께 오신 때문이었다. 재작년에는 선배님께서 모교가 국립대학에서 독립 법인화 대학으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글로 써서 동창회보 편집실에 보냈다는 (계재는 안됨), 소식을 들은지라 이날 하신 짧은 질문 - "여러분, 문리대 초대 학장이 누구였지요?" (모두 침묵), "방중현 교수 ---" (아이고, 선배님, 그 上古 시대들 우찌 다 알겠습니까) 을 하셔서 후배들을 감탄케 하셨다. 모임 후 또 선배님께서 금년에 출석자가 적은 것을 아쉽게 생각하셔서인지, 힘내고 계속 화기찬 모임을 가지라고 내년도 약속 값을 미리 보내셨다. [투고자 추무]



문리대 동창회(5월26일 세노야)에서



5년전 신석균 동문자택에서 열린 동창회

이모저모

야유회 성황 - 130명의 동문 가족 모여

동창회 창설 30주년을 맞아 야유회가 지난 7월 7일 (토) 오전 11시 부터 오후 4시까지 Busse Woods Grove #30 (Elk Grove Village, IL) 130여명의 동문 가족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은 수은주가 98도의 달하여 소름 돋지 않은 폭염인데도 이는 이전 3일간 계속된 103도의 날씨에 비하면 순실만 하여 예상과는 달리 건강한 모습의 동문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 워낙 지독한 땀벌이라 풀밭에서 운동을 하기는 어려우니, 그로브의 정자 아래서 그야말로 談笑로 보낸 하루였다. 이날은 동창회가 창립 30주년이 된 것을 상기한 소진문 동문(지대 57)의 제안에 따라 제3대 회장을 역임하신 문병훈 동문(사대 47)께서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건배사를 하셨다.

식단은 6월 30일 제2차 임원회에서 일차게 준비한 결과 갈비, 닭, 콩치, 상추, 찜장, 막걸리, 맥주, 콜라, 김치, 깍두기, 총각 김치 등이 푸짐하였는데, 즉석 진미를 정성껏 연화세공(軟化細功)의 火夫는 김용주 부회장과 변용근 총무였다. 이 요리사팀에는 처음으로 참석한 관악세대 동문, 김훈태 (사회대 84)와 박성우(사회대 86)도 함께 하였다. 동문들은 무한 공급된 진미로 함포고복의 향연을 만끽하며 선후배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였다.

식사후 참석자 전원의 탄성과 박수 속에 2시간 이상 계속된 재치문답을 이끈 탁월한 진행자는 화부로 임무를 끝낸 김용주 동문(공대 69)과 전속사진사 임현재 동문(의대 59)이었다. 방청하는 동문들은 정답을 맞추어 삼품 타는 재미가 불경기에 쿠폰 자르기보다 짹짹하였는지 모두 열심히 해답 찾기에 몰두하자, 진행자는 상품을 1인당 2개로 제한 한다는 포고령을 발동하기도 하였다.

이날 참석한 貴賓으로는 80년대 관악세대인 김훈태, 박성우, 박창진, 허서룡, 진제용(농대 86), 신미경(농대 80), 김미숙(음대 82), 정우경(미대 81) 동문과 정성일, 이계영(미대 65), 김규호(의대 58) 부부동문, 최영화(음대 50) 등의 동문들이었다. 동문들은 새 얼굴들의 열열히 환영하였다.

야유회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한 임원들과 쉼터 크림을 휘번덕하게 바른 김영호 회장과 구석구석을 살피고 Dr. 오유심의 내조로 잘 진행되었고, 임현재, 김호범(상대 69) 동문은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사진사로 수고해 주었다.(각종 동창회 행사에 오신 동문들의 사진은 사진사 임현재 동문에게 연락하시면 드릴것 입니다. email: ihmhyunj@gmail.com)



새로오신 동문들을 환영합니다

訃告

설상수 동문(문리대 52)이 숙환으로 투병중 2012년 10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향년 80세로 타계하셨다. 고인은 시카고 동창회 창립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제4대 회장을 역임하셨다. 최희수 문리대 동창회장 (1967입)이 큰 꿈을 간직하며 열심히 사시고 문리대 동창들을 격려하던 선배님을 기리며 목이메인 조사를 하였다 (조사 참조)
 약력: 1932년 2월 25일 충남 논산에서 출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1956년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1964년 University of Chicago 에서 International Relations 졸업, 1968년 동대학 경제학과 졸업, 1960년 설한숙님과 결혼, 1958년 시카고로 이민, 1958년 11월 시카고 한인 제일 연합 감리교회 등록.

노재욱 동문(골든 클럽 회장, 의대 58)이 5월 26일 6시 15분 향년 71세로 타계하셨다. 식도암으로 투병중 금년도 1차 이사회에 참석했을때 치료 전망이 밝다고 기뻐하였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곁을 떠나셨다. 의대 동기 강창만 동문은 조사에서 다재다능하고 열정적으로 친구를 돕고 싶어했고, 법없이도 살 사람이었으며 정원 가꾸기 (시카고 트리뷴 가든 콘테스트 장원), 사진 및 詩에 능하여 “인간 문화재”로 불리던 (감수상 동문) 친구를 회상하였다(조사 전문은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219호, 2012년 7월 20면에 게재됨). 또 육길원 동문은 고인은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에 무궁화를 심고, 정원을 만들고 자 하였고 보타니 가든에 한국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고인을 추모하였다. 문화회관은 노 동문의 공로를 기려 8월 26일 공로패를 추증하였다. 동창회 행사 때마다 동문들의 모든 동정을 기록하여 연말총회면 나누어 주던 “시카고 동창회 사진사”를 우리는 그리워 한다.
 약력: 고인은 1941년 12월 22일 아버지 노찰용님과 어머니 박순임님 사이에서 8남매중 6번째로 경남 밀양에서 출생, 1958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196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졸업, 1965년 도미, 1966년 미망인 노은님과 결혼, 1970년 Chicago Cook County Hospital에서 병리학 staff로 근무, 1972년 North Chicago Veterans Administration Hospital에서 Blood Bank에 chief로 30여년 근무하다 은퇴하였음. 슬하에 1남 1녀와 손자 손녀를 두셨음.

설상수선배님을추모합니다
 서기 2012년 10월 19일아침
 전날부터 내리던 촉촉한 가을비 속에서 받은 한통의 전화는 놀라움과 슬픔그 지체였습니다.무엇이급하셔서 40년 지기 사모님을 홀로두고 그리도 황망히 가셔야 했는지요. 통화를 끝내고 뉘를 내다보니 가을비는 그 때에도 촉촉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내 눈에도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기억하시겠지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대전에서 서울로 유학가서는 우리나라 대학생 대표로 국제연합(UN) 대학생 모임에서 영어로 연설하셨다는 그 총명함과 지도자 정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서럽습니다. 더 큰 꿈을 안고 1958년 이곳으로 유학오셨는데 시절을 잘 못 만나 그 큰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시카고대학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그 꿈을 사이시던 것을 알았을 때 분노에 가까운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생각나시겠지요. 1980년 봄 이기억선배님을 도와 미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동창회를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셨고 그리하여 네 번째 동창회장에 선출되셔서 보여주셨던 그 열정, 그열정을 이제 다시 볼 수 없음을 서럽습니다. 선배님은 믿음생활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 한 점 흐트러짐 없는 모범된 삶을 늘 보여주신 우리세대의 모범 생이셨습니다. 매 해 연말이면 제민저 배달 은, 후배 사랑 듬뿍 담긴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게 서럽습니다.
 선배님 천국 가시는 가을 길에 오색 찬란히 흩날리는 낙엽과 함께 환송하오니 부디 평안히 가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 복락 누리시옵소서.
 <2012. 10. 21. 후배 최희수 올림>

90년근 山蔘
 장기남 동문(문리대 62)이 금년 시카고 위아자 장터에 90년된 산삼을 기증하여, \$500 부터 시작되는 경매에 부쳤다. 장 동문은 중서부에서 알아주는 심마니이고, 산삼으로 그의 담도암 치료에도 효험을 보았다고 하였으니 기운을 내고 싶은 동문은 장심마니에게 문의하면 동창생 특별 혜택으로 그가 소장한 산삼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기남 동문(문리대 62)이 금년 시카고 위아자 장터에 90년된 산삼을 기증하여, \$500 부터 시작되는 경매에 부쳤다. 장 동문은 중서부에서 알아주는 심마니이고, 산삼으로 그의 담도암 치료에도 효험을 보았다고 하였으니 기운을 내고 싶은 동문은 장심마니에게 문의하면 동창생 특별 혜택으로 그가 소장한 산삼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2년 골든클럽 모임

창설 6년을 맞은 골든 클럽은 매달 첫 목요일 9시 갖는 조찬 모임 (Eily's Pancake House), 특별 세미나와 여행 등으로 금년에도 다정한 친구들의 모임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연하게 유지된 월례 회의록 (2011년 김정주 동문 기록; 2012년 최길용 동문부부 기록)을 바탕으로, 금년 행사 기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3월 1일 : 19명 참석. 투병 중 금년 처음으로 참석한 노재욱 회장이 그간의 치료과정과 낙관적인 예후를 전하자 동문들이 '부인이 수고 많다고 하자, 요즘은 '人命在天이 아니고 人命在妻라고 답하였고 사회학 박연희 부회장은 一病長壽 無病短命이라며 계속 힘내어 투병할 것을 당부하였음 (골든클럽名言).

4월 4일 : 조찬 후 견고 우래옥에서 노재욱 회장 초대로 점심식사 함께 함.

5월 : 1박 2일의 Springfield 여행; 노재욱 회장 별세.

6월 7일 : 32명 참석하여 고 노재욱 회장 추모 묵념. 박연희 부회장이 금년도 회장직을 승계함.

* 6월 21일 소진문 동문 세미나, Sound oral health and happy senior life (장소 우래옥)

7월 5일 : 36명 참석, 소진문 동문이 어르신 다운 올바른 걷기 운동 지침서 (앉는 자세, 걷는 자세와 걷는 법) 지침서를 배부.

8월 20일 : 30명 참석. 4박 5일 Canadian Rockies 관광을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버스 여행에 41명 참가.

9월 6일 : 29명 참석.

*세미나 - 9월 27일 5시 30, Dr. 안순규의 최근 북한 나진 교외의 텃민 병원을 보고 63명에게 백내장 수술을 하며 보았던 선교 여행기 "Seeing inside North Korea" (우래옥-아래사진참조).

10월 8일 : 단풍여행에 19명 참석.

*세미나 - 10월 25일, 정해일 동문(상대 61)의 "세계 경제와 개인의 재산 관리" (우래옥).

송년행사 : 송년회(11월 15일), 오케스트라 홀 나들이 (12월 2일) 등 예정 (소식지 8면 참조)



천년신라의 고찰 분황사 모전석탑(아래)와 석탑을 지키는 낙낙장승(위)



관악산이 배출한 신예 작곡가 박용빈 동문

세종문화회가 주최 제3회 국제 작곡 경연 대회에서, 1등인 세종상을 박용빈 동문 (음대 2005년)이 수상하였다. 동 대회에는 7개국에서 39명의 작품중에서 뽑힌 것으로 국악 "청성곡"을 재해석 하여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에서 고음역의 맑은 소리를 국악적 음색 효과를 내는 새로운 화음을 창조하였다 한다.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221호 2012년 9월 17면 참조).

세종문화회는 시카고 동창회가 지원하고 있는 한국문화유산의 이해를 높이고, 다인종 사회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Music Competition, Music Composition과 English writing (시조와 에세이) Concours를 주최하여 이제 국제적인 창작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금년도 각종 행사 일정은 www.sejongculturalsociety.org 참조)

시카고한인문화회관(KCCOC) 제4대 회장 취임 감사직 동문



김사직(상대 59) 동문이 지난 8월 26일 5시 30분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9330 S. Capitol Dr., Wheeling, IL 60090) 의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동문은 취임사에서, 문화회관 건물을 마련하여 개관하기까지 벽돌쌓기 운동으로 부터 시작된 동포사회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한국전통문화를 이땅에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도량으로 문화회관을 발전시켜야 하는 소임에 책임감을 깊이 느끼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운영에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 젊은 후세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교가 될 것이라 하였다.

이날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강영희(의대 58, 강창만 동문 부인)씨가 반가운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동안 현안이 되어 오던 연 11만불의 재산세를 조세당국의 면세 결정을 곧 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 현재 문화회관에는 매일 다양한 주제로 한 학기 12주의 문화 강좌 (1학기 수강료 \$30, 부부 \$45)가 열리고 있고, 또 특별 주제의 세미나도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부산시의 지원으로 사각형의 한국 전통 건축양식을 도입한 부산점이 금년내로 곧 세워질 것이라 한다.

이날 취임식에는 장기남 동문(문리대 62, 문화회관 건축위원장과 초대 회장 역임)이 환영사 겸 신입회장 소개를 하였고, 김종갑 한인회장과 허철 총영사의 축사에 이어 김기봉 동문(음대 87)의 축가와 왕규희 동문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다. 또 문화회관의 정원 조성과 시카고 보타니 가든 내에 한국정원 설립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던 고 노재욱동문(의대 68)에 대한 공로패의 추증이 부인 Dr. 노은님에게 전달되었다. 현재 문화회관에는 장기남 동문이 홍보와 모금에 주력하는 홍보이사, 이윤모 박사 (농대 57)가 세미나 강좌를 맡고 있고, 함성택 동문(문리대 55)이 박물관을 담당하여 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김기봉 동문은 음악분과, 임이섭동문 미술분과, 조봉완 박사 (법대 53) 는 역사학 은퇴 교수로서 문화회관 이사로서 교육강좌 발전에 주력, 이승자동문(사대 60)은 부회장로서 그랜트 신청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다. 문화회관 임원 및 재정 후원 이사들의 소개 후 축하 만찬이 있었다.

*이윤모 박사는 10월 4일 (목) 오후 7시에 문화회관 Community Hall에서 다인종 사회에서 빈발할 수 있는, "한인 권의 침해 사례와 법적 대응책"이란 특강을 하였다.

시카고한인문화회관(KCCOC) 제4대 회장 취임사 (全文)

존경하는 Chicago 지역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중에는 놀라운일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한국 축구가, 세계 4강에 올라가서 숙적인 일본을 이긴 소식 등등입니다. 제자신에게는 참으로 놀라운일이 제가 2012년 Chicago 문화회관에 회장으로 봉사를 하게 된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문화회관에 이끌어 가야한다니 책임이 무거워서, 여러번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회관 건립을위해, 2004 년에 시작한 벽돌 쌓기 운동부터, 2005 년부터 시작한 기금 모금과 건물구입까지 많은 수고들해주신 교민들, 또지난 몇년간 문화회관 운영을 해주신 역대 회장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Chicago 교민 역사상 길이길이 문화회관의 밑거름으로 기억될것입니다.

그나라의 문화를 알면 사람들을 알게되고 그나라와 민족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카고 땅에서 우리의 고유 문화를 심어주면 우리들의 오고오는 세대들이 탄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면서 공존할때 큰 자존감을 갖게 될것입니다.

더욱 요즘같은 Global 시대에는 문화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내에는 많은 program 있는데 박물관, 도서관, 교육, 음악, 무용, 미술, 요가, 라인댄스,탁구, 바둑 요리를 위한 Program 과 차세대 육성을 강화하는 Next generation board 등이 있으며, 모든분야에 전문성있게 운영 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한국의 얼을 심어주고, 미국 주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는 일이 우리미인 1세대들이 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오고 오는 우리 교포 차세대 를 위해, 이 문화회관이 건실하게 발전되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과제를 이루기위하여서는교민들이 모두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주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충고와 권면도 하여주셔야 합니다. 제자신은 빠른시일내 문화회관운영을, 젊은후세에게 넘겨주는 다리의 역할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 문화회관 임원들과 이사님들,또한 자원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분은 여러 교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12년 8월26일 김사직)

國公立大 통합과 共同學位제의 문제점 [박명진,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부총장]

민주통합당에서 국공립대의 통합과 공동학위제를 대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국공립대 간의 교수, 학점, 강의 교류와 공동학위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 말을 들어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10개 주립대의 연합체제가 새로운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 같다. 프랑스나 독일 대학의 평준화 제도에 새로운 참조 대상이 더해진 것이다. 공동학위제가 과연 가능한 제도이며 국공립대의 동반성장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캠퍼스별 모집

국립대 간 교수 교류는 활용은 잘 안되고 있지만 이미 있는 제도다. 학점 교류 역시 교환학생제도를 통해 서울대에서만 매년 지방 국립대생 300~400여 명이 학점을 취득해 간다. 그것을 뛰어넘는 교수와 강의 교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한 인터넷 과학자 사이트에 지방 거점 국립대의 어떤 이공계 교수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국립대가 통합 되더라도 교수, 학점, 강의의 교류라는 것은 꿈에 가까운 일입니다. 부산에 있는 교수에게 강원도 가서 수업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대전에 있는 학생이 수업 들으러 전라도에 갈까요? (중략) 그리고 교수가 다른 학교로 옮기고 나면 그 밑에서 공부하던 대학원생들도 함께 가야 하고, 애써 세팅해 놓은 실험기계를 다 싸매 들고 옮겨야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 짓을 해야 한다니...”

공동학위제의 경우 현재도 대학원 수준에서는 학교, 전공분야 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서울대는 조만간 대학원 수준의 공동학위제를 일부 지방대와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학부 수준에서 캘리포니아주립대처럼 공동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공동학위제를 하자는 것인데 오해가 있는 듯하다. 캘리포니아대 산하 10개 주립대가 학생을 공동 모집한다지만 지원서 제출 창구를 단일화해서 대학 간 복수 지원을 가능케 한 것뿐이지 그 선발심사는 지원하는 대학에서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한다. 공동으로 뽑아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원이 아닌 학부의 공동학위제란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 10개 대학이 졸업장에 공동으로 캘리포니아대의 명칭을 쓰고 있지만 버클리 캠퍼스인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인지 소속이 병기돼 있다. 혹시 이것을 두고 공동학위제라고 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립대 아래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소속 학교를 병기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졸업장의 형식을 바꾼다고 국립대 간 격차가 없어질 것인가.

국립대 체제인 유럽에서는 그동안 아비투어나 비칼로레아 같은 대학입학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대학에 진학해 대개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학제하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60여 년 지속된 평등주의, 평준화 대학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한창이다. 유럽의 고등교육 제도가 미국과 아시아 대학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급속히 낙후되고 있는 탓이다.

無 경쟁 벗어던지는 유럽 대학

프랑스는 1968년 사태 직후 대학가가 극도로 정치화되면서 학문적 교육적 원칙과 무관하게 좌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산됐던 종합대들을 재 정비하고 있다. 엘리트 직업학교인 그랑제콜, 석·박사 학위를 통한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과 대중적 고등 교육을 맡았던 대학, 연구소의 삼두체제로 나뉘었던 교육 연구 단위를 합쳐서 지역별로 26개의 연합체를 만들었다. 각 대학과 대학 연합체에 재정, 인사, 학제, 학생선발 등의 자율권을 쥐 특성화 와 경쟁을 유도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파리 남부 대학 연합체는 30억 유로가 넘는 집중 지원을 통해 엘리트 대학으로 육성되고 있다.

독일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무료 교육에서 탈피하기 시작했고 100여 개 종합대 중 엘리트 대학 10개를 뽑아 집중 지원 하며 특성화와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고 주 정부가 담당하던 많은 권한을 대학에 이양, 자율성을 확보케 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공립대 통합체제란 유럽 대학이 벗어던지고 있는 평준화와 획일화, 무(無)경쟁을 받아들이지는 것이다. 국립대 간 서열이 없다면 대학 발전은 보장되는 것인가. 유럽의 실패에서 배울 점이 많다. 현재 지방 국립대 중에는 해양학, 지역개발학, 일부 공학 분야 등 전문성에서 서울의 어느 대학보다도 우월한 수준을 지닌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서울과 차별화되는 지역적 특성을 살렸거나 지역 내의 지자체, 대학, 기업들 간의 자율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으로 전문화를 추진한 결과다. 이런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국공립대 통합과 공동학위제는 허상(虛像)이다. 정치인들이 정체불명의 개혁안을 들고나와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국립대들이 각기 자율과 책임 속에서 발전 전략을 만들어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 <필자 e-mail: mjinpark@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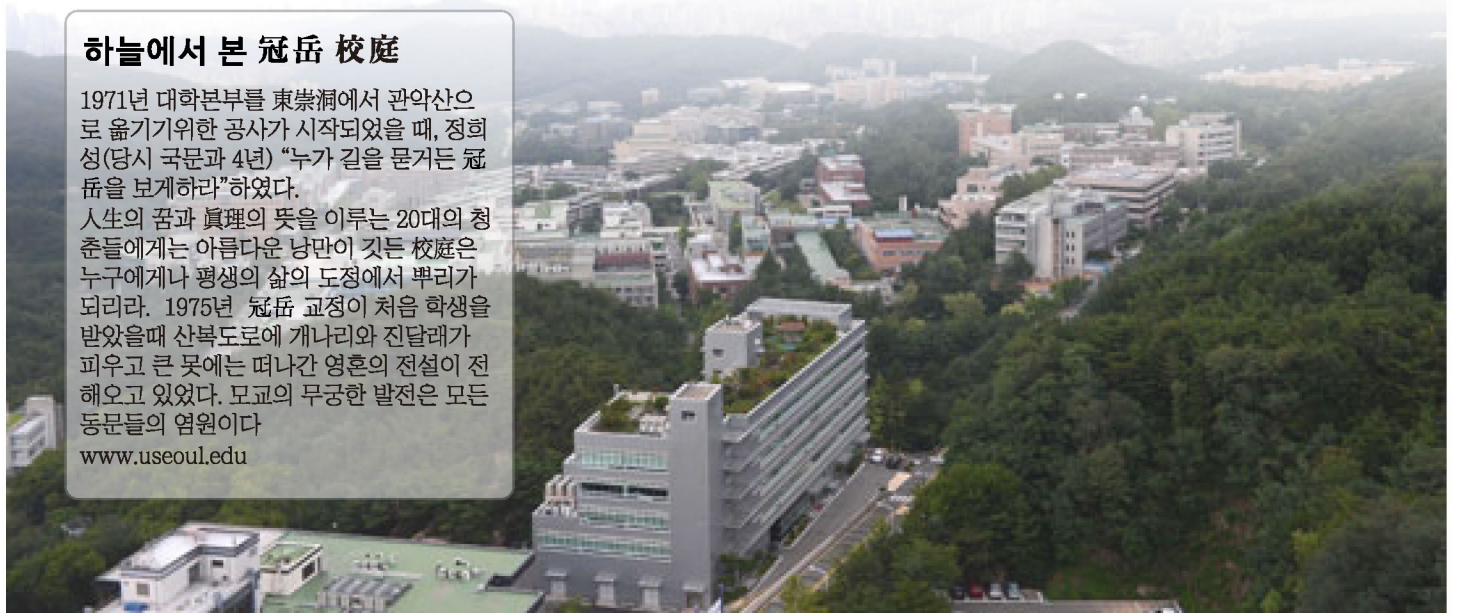
<편집자주> 이 글은 원래 동아일보 3월 4일자에 게재된 것으로 이 글의 소식지 전재를 허락하신 필자와 이를 위해 다리가 되어준 권형기 박사(사회대 85, 시카고동창회 장학생, 모교 정치학과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본 冠岳 校庭

1971년 대학본부를 東崇洞에서 관악산으로 옮기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정희성(당시 국문과 4년) “누가 길을 묻거든 冠岳을 보게하라” 하였다.

人生의 꿈과 眞理의 뜻을 이루는 20대의 청춘들에게는 아름다운 낭만이 깃든 校庭은 누구에게나 평생의 삶의 도정에서 뿌리가 되리라. 1975년 冠岳 교정이 처음 학생을 받았을 때 산복도로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우고 큰 못에는 떠나간 영혼의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다. 모교의 무궁한 발전은 모든 동문들의 염원이다

www.useoul.edu



동문들의 성심으로 모교와 동포사회의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동창회

동문 선후배님,

우리 시카고 동창회는 매년 공개지원한 응모자 중에서 (지원서에는 구비서류중에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동문추천서 포함) 11인의 장학생선발 위원회가 엄선한 6-10명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재정적 도움이 절실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 수혜자가 180여명 (2011년 말까지)입니다. 그 장학생들이 지금 모교와 국내외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에 재직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국과 동포사회와 지구촌 발전의 인재로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 고마움을 잊지않고 근황을 알려 오고있어, 우리 동문들의 성심을 모아 펴는 이 장학 사업의 대의와 보람을 상기 하 게됩니다.

우리 장학 기금 관리 위원들은 투자된 장학기금을 최선으로 관리하여 (금년 9월 현재 \$ 94,000 의 장부상 평가 가치) 당해년도에 소요되는 장학금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기금의 과실금이 적습니다 만, 동문여러분의 성심을 모아 이 뜻있는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동아리" 를 키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으로 지정하여 특별 성금을 보내주신 동문 선후배님께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장학기금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내 두루 다복하시고 편안하신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10월 20일, 시카고동창회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위원
구행서, 한상호, 임근식, 김병윤, 장윤일(위원장), 김영호, 이동균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 2012년 장학생 선정 요강

1. 장학생수: 장학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5명 내지 10명까지 선정 예정.
2. 장학금 규모: 1인당 \$1,000.
3. 지원 자격: 시카고 동창회 관할 지역 (IL, WI, IN, MI) 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senior),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한국어로 부터 은 유학생 포함).
4. 지원서 제출 마감일: 2012년 9월 30일 (e-mail로 구비서류 접수 완료 해야 함).
5. 구비 서류
1) 지원서 1통: 지원서 양식은 동창회 www.SNUaaChicago.org 에서 내려 받음.
2) 추천서 2통: 1통은 지원자의 소속학교 지도 교사/교수로 부터 받고, 다른 1통은 동창회의 2012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부터 받음.
3) 재학중인 학교 성적 증명서 1통.
4) Essay- 지원자의 삶과 공부 목표와 성취도 및 재정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
5) 지원서 제출처 : SNUaaChicagoArea@gmail.com
*E-mail의 subject란에는 지원자의 이름을 쓰고, 모든 구비서류는 첨부 서류 (attachment)로 보내고, 추천서는 추천자가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추천인의 본인의 e-mail을 통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6. 비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지원 서류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2012년 8월 1일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 2012년 장학위원회 위원장 김 영 호

2012년 기부자 명단



동창회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ㄷ 이사회비 (\$200) 69명 납부

강영국, 강창만, 구경희, 구행서, 김영자, 홍혜례, 김윤범, 김승주, 김학수, 노영일, 노재욱, 문병훈, 박 속, 조중행, 박연희, 한상호, 박영규, 박창만, 변용국, 배영섭, 신석균, 이영우, 김병윤, 김사직, 김성범, 김연화, 김영호, 김용주, 오홍태, 왕진한, 유성모, 이광선, 이동균, 이용락, 이윤모, 이정일, 이종일, 임근식, 임이섭, 임현재, 장기남, 장시경, 장윤일, 전현일, 정승규, 조대현, 조형원, 최대한, 한재은, 황치용, 소진문, 양(송)원희, 연경자, 이철주, 송순영, 이승자, 박용순, 최의필, 박창욱, 이진주, 김윤하, 원인숙, 박종희, 최길용, 김윤태, 정지휘, 김일훈, 김태기, 한의일

ㄷ 동창회비 (\$30) 94명 납부

강수상, 강영국, 강창만, 구경희, 구행서, 김영자, 김정수, 홍혜례, 김윤범, 김승주, 김학수, 노영일, 노재욱, 문병훈, 박 속, 조중행, 박계영, 박연희, 한상호, 박영규, 박창만, 변용국, 배영섭, 서상헌, 신석균, 이영우, 김동희, 김병윤, 김사직, 김성범, 김연화, 김영호, 김용주, 오홍태, 왕진한, 유성모, 이광선, 이동균, 이용락, 이윤모, 이정일, 이종일, 임근식, 임이섭, 임현재, 장기남, 장시경, 장윤일, 전현일, 정승규, 정승훈, 조대현, 조형원, 최혜숙, 최대한, 한재은, 황치용, 소진문, 이훈병, 양원희, 연경자, 이승훈, 강화영, 고병철, 이철주, 송순영, 이승자, 한경선, 김광철, 김규호, 김미숙, 박용순, 박창훈, 송재현, 이경미, 정병욱, 진병수, 최영화, 최의필, 박창욱, 정지휘, 이진주, 김윤화, 원인숙, 김호범, 박종희, 김길중, 최길용, 김윤태, 김기봉, 라은실, 김일훈, 김태기, 한의일

특별성금 (장학금과 소식지 발간 지원)

간호대 동창회(\$1000), 강창만(\$600), 송원희(\$200), 이승훈(\$30), 송순영(\$200), 이용락(\$1,740 소식지 발전을 위하여), 김대균(\$100), 강영국(\$70), 김영호(\$504), 김윤범(\$100), 임현재(\$100), 장기남(\$140)

2012년도 동창회 이사명단

2010-2012 : 38명

구행서(공69), 김규일(공71), 김병윤(문66), 김선웅(공72), 김연화(공68), 김윤범(의52), 김윤태(의63), 김재환(사72) 김호웅(법65), 노재욱(의58), 문병훈(사47), 박 속(의64), 박연희(간61), 배영섭(의52), 소진문(치58), 안창현(의55) 연경자(약65), 오홍태(공61), 이경미(미69), 이동균(공75), 이용락(공48), 이윤모(농57), 이정일(농59), 이진주(문55) 이철주(치61), 장기남(문62), 정지희(문59), 조대현(공57), 조중행(의63), 최희수(문66), 한의일(공62), 한재은(의59) 홍혜례(사72)

2011-2013 : 28명

장시흥(상51), 구경희(의59), 김동희(공66), 김사직(상61), 김윤하(공66), 김일훈(의51), 김현욱(문69), 박영규(농57) 박창만(공56), 변병철(공59), 백준철(공62), 서승환(치57), 신석균(문54), 양원식(공77), 왕진한(공61), 이광선(의59) 이서구(치72), 이영우(문66), 임이섭(미55), 장윤일(공60), 정 호(공62), 장시경(약59), 최의필(의53), 한상호(의56) 황치용(문65), 지옥희(간69), 김성범(상50), 최순분(간57),

2012 - 2014 : 31명

강영국(수67), 강창만(의58), 곽영로(수72), 김봉현(법51), 최길용(문57), 김영자(간69), 김영호(의71), 김용주(공69) 김경길(의61), 김정주(문60), 김태기(의62), 노영일(의62), 박용순(의53), 박종희(의69), 송순영(문52), 송원희(미60) 원인숙(간69), 위장호(의67), 이승자(사60), 이영민(의54), 이종일(의65), 임근식(문56), 임현재(의59), 전현일(농62) 강수상(의47), 조형원(문50), 최대한(의53), 김학수(공70), 변용국(미81), 정승규(공60), 유성모(미82)

당연직 이사 <단과 대학 회장>

간호대: 김현희(간68) / 공대: 김동희(공66) / 농대: 김중환(농66) / 문리대: 최희수(문67) / 미대: 유성모(미82) / 법대 / 사대: 유희두(사72) / 상대 / 수의대: 곽영로(수72) / 약대 / 음대: 김연화(음68) / 의대: 최대한(의53) / 치대: 하정윤(치81)

하계 आय회 퀴즈보다 더 쉬운문제 3

1. 태권도와 합기도가 겨루면 누가 이길까요?

가위 바위 보 (아래를 보세요)

2.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 오면 이화대학을 꼭 가는 이유?

梨花=利發 (중국어로 발음)

3. 해보기 (watching sun?)

해답은 검열 삭제됨



2012년 시카고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에 초대합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본 동창회 2012년도 총회 및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부 동반 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후배간에 우의를 다지고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눌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시: 2012년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5:30
장소: Drury Lane 100 Drury Lane,
Oakbrook Terrace, IL 60181 • (630)530-8300
송년회비: 1인당 \$85
연락처: 한의일 (312)213-8557/김영호(773)584-2355
2012년 10월 22일 회장 김영호 드림

참가 신청서

이름 : 한글 _____
영문 _____
출신대학 : _____
참석자 수 _____ X \$ 85= 총액 \$ _____
전화 : _____
E-mail : _____

Please make check payable to : SNUAA-Chicago
Send to: SNUAA-Chicago (3606 W Lawrence Ave, Chicago, IL 60625)
11월 18일 까지 참가 신청을 하여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베르디와 푸치니의 오페라 아리아 감상

Verdi와 Puccini의 일생을 돌아보며, 유명한 Opera해설과 주옥같은 Aria를 감상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르디 오페라 La Traviata, Nabucco, Rigoletto
푸치니 오페라 La Boheme, Tosca, Madame Butterfly
강사: 김영
일시: 11월 8일(목) 10:30am-Opera감상,
12pm-무료점심제공(강사)
장소: 한인문화회관 커뮤니티 홀(9930 Capital Dr., Wheeling, IL)



제9회 세종문화회 Music Competition

일시: 2012년 12월 2일(지원서마감 11월 17일)
장소: UIC
자세한 내용은 www.sejongculturalsociety.org 참조.

2012년 골든클럽 송년회

일시: 2012년 11월 15일(목요일)
장소: Fairbridge Hotel(옛 Executive Plaza Hotel)
1090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자세한 내용은 박연희 회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세종문화회 "Enchanted Evening with Sijo, Wine and Art"

일시: 2012년 11월 17일 6-8pm
장소: Andrew Bae Gallery
300 W Superior St., Chicago, IL 60654
회비: \$30 (세종문화회 사업의 재원이 됩니다)

골든클럽 오케스트라홀 나들이

일시: 2012년 12월 2일(일)
장소: 시카고오케스트라 홀 (Andrea Bocelli 공연관람)
참가인원 증가되면 대절버스로 교통편 마련됨.
문의: 박연희 회장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Chicago
3606 W. Lawrence Chicago, IL 60025
Website: www.snuachicago.org
E-mail: kimyounghousa@yahoo.com
(773) 583-4122 or (773) 584-2355



PLACE
STAMP
HERE

❖ 이사하시거나 새로오신 동문 선후배를 아시면 이메일과 함께 꼭 알려주세요!!!

시카고 서울대학교 2012년도 동창회 회원 등록 양식

이름	한글:	영어:
단과대학	전공:	입학년도:
주소		
전화	H	B C
E-mail	꼭보내주세요	

동창회 후원금

이사회비 동창회 장학금
 동창회비 기타 동창회 후원금



❖ Check는 Payable to : SNUAA-Chicago
Mail to : Young Ho Kim (3606 W. Lawrence, Chicago, IL 60025)